年 18% 성장하는 펨테크… “산업범위·기업현황 파악 우선”

〈여성+기술〉

2026 펨테크 컨퍼런스

중기부 주최, 여기종 주관 행사
펨테크 선정 기준 명확히 하고
기업별 필요·성과 맞춤 정책 제안

중기부, 지원 정책·예산 총괄하고
여경협, 기업발굴·사업화 등 집중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6 펨테크 컨퍼런스’가 9일 오후 대전 유성 호텔인터시티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경협

글로벌 펨테크(FemTech)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관련 산업 육성에 뒤쳐지기 않기위해선 당장 내년부터 펨테크 산업 범위와 기업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을 정하고 기업 성장 단계 진단과 유망기업 발굴 등을 통해 펨테크 산업의 지속 육성을 위한 초석 마련이 가장 먼저 필요하기 때문이다.

첫 발을 잘 내딛으면 기술개발→현장검증→시장진입→후속투자·사업확대→성과점검·개선 등 펨테크 지원 경로 구축이 순차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여기종)가 주관해 9일 오후 대전 유성 호텔인터시티에서 열린 ‘2026 펨테크 컨퍼런스’에서 나왔다. 이날 행사에는 팸테크 기업, 산업·의료·투자 전문가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펨테크’란 여성(Female)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용어로 월경, 난임, 임신, 출산, 갱년기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건강문제와 여성에게만 나타나는 건강문제들을 해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승현 연구위원은 이날 ‘펨테크산업의 성장전략과 생태계 조성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문제와 관련 질환 진단·관리 수요 등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건강수요가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공지능(AI), 바이오, 웨어러블, 데이터 기술의 발달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우리도 펨테크 산업에 주목해야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제2차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에 펨테크 기업 발굴·육성 등을 처음 포함시키면서 첫 걸음을 내딛였다. 올해에는 관련 유망기업 발굴·사업화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Fortune Business Insights)는 2025년에 91억2000만 달러 수준이었던 펨테크 산업이 2034년엔 411억4000만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2026년부터 203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18.37%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펨테크 선정 기준을 명확히하고 기업별 필요, 사업성과에 맞게 정책을 개선하기위해 펨테크 산업 범위와 기업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 과정에서 신규 진입, R&D, 투자유치, 수출, 인력, 규제 애로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수요가 집중된 산업영역과 성장단계를 파악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부처와 기관별 역할 정립도 중요하다.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펨테크 지원사업 정책·예산을 총괄하고 여경협은 유망기업 발굴, 사업화, 투자 연계 등에 집중한다. 여기종과 여성경제연구소는 창업보육, 기업정보, 실태조사 등을 담당한다. 또 의료·규제·투자·민간전문기관은 임상·인허가·R&D·투자·판로 등 분야별 전문성을 지원한다.

박창숙 여경협 회장 겸 여기종 이사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 삶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기술과 혁신으로 해결해나가는 팸테크 산업은 특히 의료, 바이오, 디지털 기술 등 다양한 분야와 연결되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라며 “그 가능성이 실제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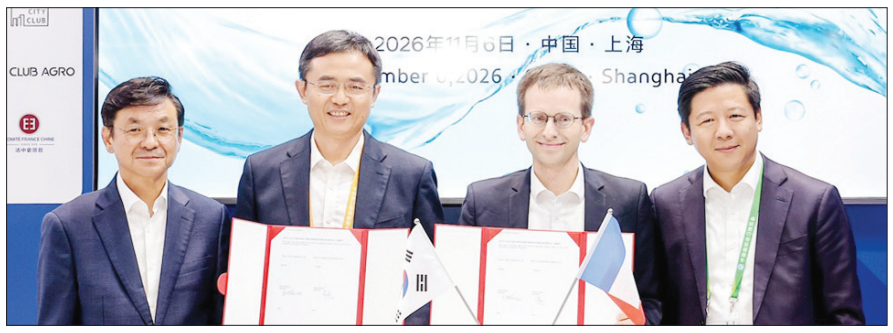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 中 수소사업 강화

佛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업무협약
수소연료전지·인프라 역량 결합
수소 모빌리티 밸류체인 전반 협력

현대차그룹의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생산거점 ‘HTWO 광저우’가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손잡고 중국 수소 모빌리티 사업 협력에 나선다.

HTWO 광저우는 지난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2026)에서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에어리퀴드 차이나는 프랑스 가스 기업 에어리퀴드의 중국 법인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현대차 중국권역상용수소담당 겸 HTWO 광저우 총경리 최두하 전무, 에어리퀴드 차이나 루이 코엘료 CEO, 에어리퀴드 차이나 클레멘트 릭스 부총감, 천싱 부총경리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왼쪽부터)현대차 중국권역상용수소담당 겸 HTWO 광저우 총경리 최두하 전무, HTWO 광저우 손흥기 부장, 에어리퀴드 차이나 클레멘트 릭스 부총감, 에어리퀴드 차이나 천싱 부총경리가 지난 6일 중국 상해에서 열린 제 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서 ‘수소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양사는 HTWO 광저우의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기술과 에어리퀴드 차이나의 수소 생산·저장·운송 및 인프라 구축 역량을 결합해 수소 모빌리티 밸류체인 전반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물류 거점과 간선 운송 등 실제 운송 환경에서 수소 공급과 수소 상용차 운영을 연계해 효율적인 운영 모델을 검증한다. 이를 통해 총소유비용(TCO)을 절감하는 등 경제성을 높여 중국 시장에 적합한 수소 모빌리티 사업화 모델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양사는 구체적인 적용 시나리오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중국 수소 상용차 시장에 적합한 사업 모델을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최두하 HTWO 광저우 총경리는 “HTWO 광저우는 수소연료전지 연구개발과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중국 상용차 시장에서 수소연료전지 적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협력으로 차량 운송·충전 인프라·수소 공급을 연계한 수소 밸류체인 사업 모델을 모색하고 중국 수소 모빌리티 산업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천싱 에어리퀴드 차이나 부총경리는 “각 사의 강점을 결합해 수소 물류와 차량 실증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경제성과 지속 가능성을 갖춘 수소 모빌리티 솔루션을 모색해 중국 교통 분야의 친환경 전환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LS그룹, AIDC 전력망 안정에 힘 모은다

LS머트리얼즈-LS일렉트릭
E-STATCOM 개발·실증 ‘맞손’

LS그룹 소재 계열사 LS머트리얼즈와 전력기기 계열사 LS일렉트릭이 울트라캐패시터(UC)와 전력망 안정화 설비인 정지형 무효전력 보상장치(STATCOM)를 결합한 차세대 시스템 ‘E-STATCOM’을 공동 개발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AI 데이터센터(AIDC) 증설로 전력망 안정화 수요가 늘고 있지만 관련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아직 실증 단계인 만큼, 그룹 내 역량을 묶어 시장을 먼저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LS머트리얼즈는 LS일렉트릭과 ‘E-STATCOM(Enhanced STATCOM) 기술 개발 및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재생에너지와 AIDC 확산으로 커지는 전력망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기상 여건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고 AIDC는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면서 부하가 급격히 변동할 수 있어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E-STATCOM은 기존 STATCOM의 전압 안정화 기능에 UC의 고속 충·방전 기능을 더한 시스템이다. 전압과 주파수 변동은 물론 순간적인 전력 수급 불균형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양사는 LS일렉트릭의 전력변환·계통 제어 기술과 LS머트리얼즈의 대용량 UC 시스템을 결합해 E-STATCOM을 공동 개발한다. 실증을 통해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한 뒤 시스템 국산화와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업계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전력망 고도화 수요가 맞물리면서 글로벌 STATCOM 시장이 2030년 약 20억달러(약 2조7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홍영호 LS머트리얼즈 대표(왼쪽)와 박우범 LS일렉트릭 EA사업본부장이 9일 LS일렉트릭 글로벌 R&D 캠퍼스에서 열린 ‘E-STATCOM 기술 개발 및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S그룹

LS그룹 관계자는 “LS머트리얼즈가 2024년 국내 최초로 개발한 MW급 랙형 UC 시스템 ‘LS UltraGrid’는 0.1초 이내에 MW급 전력을 공급하거나 흡수할 수 있어 E-STATCOM에 적용하면 재생에너지와 AIDC의 전력망 안정화에 활용할 수 있다”며 “LS일렉트릭은 국내에서 총 4.7Gvar 규모의 STATCOM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사업 경험을 쌓았고 E-STATCOM 최적화 설계와 운전제어 관련 특허 등 독자 기술을 확보한 데 이어 국내 최초로 미국 UL 검증을 받은 그리드포밍(Grid Forming) 제어 기술도 접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한화세미텍
김진우 신임 대표 내정

HBM용 TC·하이브리드 본더 공략



한화세미텍은9일 반도체 장비 사업을 이끌어 온 김진우 사업총괄(사진)을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했다. 30대 전략 전문가가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용 TC본더 시장 확대와 하이브리드본더 등 신시장 개척에도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그동안 한화비전과 한화세미텍을 함께 이끌어 온 김기철 대표는 한화비전의 사업 확장에 주력한다.

올해 37세인 김 신임 대표는 고려대 통계학과를 졸업한 뒤 글로벌 회계법인 KPMG와 전략 컨설팅기업 AT커니 등을 거쳤다. 반도체·이차전지·산업기계 분야의 사업전략 수립과 추진을 맡아 온 전략 전문가로, 지난해 한화그룹에 입사해 한화세미텍에 합류했다.

한화세미텍에서는 전략수립과 사업총괄을 맡아 주력사업인 후공정 반도체 장비의 시장 확대를 주도했다. 사업총괄로서 산업용 장비 사업구조 개편과 성장동력 확보에도 힘써 왔다.

김 신임 대표가 반도체 장비 시장 확대에 공들인 지난해 한화세미텍은 TC본더 ‘SFM5 Expert’로 9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올해 3분기에는 반도체 장비 매출이 848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2% 늘었다.

한화세미텍은 김 신임 대표를 필두로 HBM 제조 핵심 장비인 TC본더 시장을 넓히는 한편 하이브리드본더와 패널레벨 패키징(PLP) 등 신시장 개척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화세미텍 관계자는 “반도체장비 부문 등 주력사업의 안정화와 시장 확대에 힘써 온 김 신임 대표가 앞으로도 한화세미텍의 새로운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